

사회



13일 오전 광주시 북구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 배추출하장. 배추 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배추를 사려는 소비자들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배추대란’... 이번엔 반품·폐기

가격 비싸 안 팔리고 질 낮은 배추 공급 ‘퇴짜’

‘배추 대란’의 불똥이 농산물 도매상과 식자재 납품업자들에게까지 튀었다. 배추가 ‘금추’가 된 탓에 오래 동안 팔리지 않아 시들해져 상당 물량을 폐기하는가 하면 질 낮은 배추를 급식소에 납품했다가 반품처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오전 9시께 광주시 북구 각화동 2만3000㎡ 크기의 농산물도매시장 배추 출하장. 3m~4m 간격으로 중도매인들이 나팔받은 배추 더미(길이 5m·높이 1.6m)가 줄지어 있었다. 쌀쌀한 날씨 탓인지 40~50대의 중도매인 5~6명은 배추 앞에 잔뜩 웅크린 채 앉아 있었다. 긴 한숨소리도 연방 터져나왔다. 이를 대변해주듯 하얀 속살을 드러낸 배추도 눈에 띄었다. 일주일 넘게 팔리지 않으면서 시들해져 배추 겉잎을 벗겨낸 저품질의 배추다. 한 쪽에 모아둔

시래기는 인력거꾼들이 가져갔다. 사과·배 등 청과류 도매점과는 달리 배추 도매점은 고요했다. 간혹 40~50대 아주머니들이 도매점에 진출한 배추를 보고 스킨너 지나갈 뿐이었다. 중도매인들이 “배추 좋으게, 한 번 보고 가시랑게”라고 목청을 높였지만, 소비자들은 들은 척도 안 했다. 중도매인 김모(여·55)씨는 “배추 판지 20년이 넘었는데, 올해처럼 힘든 적은 처음”이라며 “산지에서 물량도 나오지 않을 뻔더러 실령, 배추가 있더라도 소비자들이 사지 않는다”고 말했다.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에 따르면 지난 1일~30일까지 한 달간 배추 거래실적은 1596t. 이는 전년 동기 2455t보다 35%(859t) 감소한 수치다. 고랭지 배추 세포기(10kg·도매가격) 기준 가격은 3만5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7배 올랐다.

폐기처분되는 배추도 많다. 값이 비싸서 팔리지 않기 때문이다. 한 중도매인이 하루 동안 내다버리는 배추는 10포기~20포기. 배추를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15명인 점을 감안하면, 하루 평균 150포기~300포기를 폐기하고 있는 셈이다. 반품도 잇따르고 있다. 급식납품업체의 경우 손해를 조금이라도 덜 보기 위해 값싼 배추를 구입해 학교 급식소 등에 물품을 대주고 있는데, 학교측은 “품질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반품하고 있다. 학교 급식소에서 물품을 건네받은 급식납품업체는 해당 물량을 중도매인에게 다시 돌려보내면서 각화동 농산물도매시장은 중도매인들의 한숨 소리 가득했다. 중도매인 이모(56)씨는 “배추값이 비싸서 소량으로 공급받아 내다팔고 있는데, 잘 팔리지 않으면서 손해만 보고 있다”며 “당분간 배추 취급을 안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전기고 합격생은 후기지원 못해 상위 30%만 자율형 사립고 지원”

광주 2011년도 고교입시 확정

광주지역 2011학년도 고교 입시 전형이 확정됐다. 자율형 공·사립고 지정 등으로 예년과 많이 달라진 만큼 사전에 구체적인 전형요강 등을 파악해 지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자신의 진로와 학습능력이 결맞는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전기고>= 전기고 지원자는 전형일자에 관계없이 1개 학교만 지원할 수 있으며 전국 다른 시도를 포함한 이종지원은 제한된다. 전기고 합격생은 후기고에 지원할 수 없다. 다만, 마이스터고 불합격자는 특성화고에 지원할 수 있다. ▲특목고(광주예술고·광주체육고·광주자동차설비공업고)= 국악, 음악, 한국화, 미술, 무용과 각 38명씩 모집한다. 원서접수는 10월18일부터 25일까지. 광주체육고는 학급당 38명씩 3학급 114명을 전국단위로 뽑는다. 원서접수 10월 20일~25일. 광주자동차설비공업고의 정원은 80명이다. 원서접수 10월20일~22일. ▲자율형 사립고(보문고·송원고·송덕고)= 남녀 8학급 280명, 송덕고는 학급당 38명씩 8학급 304명을 선

발한다. 중학교 성적 상위 30% 이내만 지원이 가능하고 검정고시 합격자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 평균이 95점 이상이어야 한다. 10월 20일~25일 원서접수. ▲전문계고(특성화고·광주공고·광주자연과학고·광주전산고 등 13개 학교)= 11월15일부터 23일까지 원서 접수하며 12월3일 합격자 발표한다. 학교에 따라 전국 단위 모집과 지역 단위 제한 모집 등이 있다. <후기고> ▲자율형 공립고(상일여고·광주고·광주제일고)= 일반계고와 마찬가지로 12월20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중학교에서 수험, 시 교육청에 접수한다. 중학교 내신 성적 제한 없이 희망자가 1개교를 선지원하고 추첨으로 선발한다. 탈락학생은 일반계 고교에 배정한다. 과학 중점학교인 조대여고도 100% 선지원, 추첨으로 선발한다. ▲광주화지지역(일반계)= 원서접수 12월20일~23일, 합격자 발표 12월 28일, 학교 배정 2011년 2월1일이다. 학생들의 고교 선택권을 존중, 우선 학교 정원의 40%는 ‘선지원 추첨 배정’ 나머지 60%는 ‘지리정보 추첨 배정’을 병행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집앞 눈 안치우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울 겨울부터 집 앞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은 주민은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하려면 전국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서울의 폭설 사태 이후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집 앞 제설 거부 과태료’ 정책을 강행하기로 했다. /연행뉴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13일 “이런 도로 등에 쌓인 눈을 치우지 않으면 인근 건물 소유자 등에게 과태료를 물리게 될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재앙을 최소화하려면 전국민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 1월 서울의 폭설 사태 이후 적정성 논란을 빚었던 ‘집 앞 제설 거부 과태료’ 정책을 강행하기로 했다. /연행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7분
해질 17시 59분
달출 13시 04분
달질 23시 12분

서늘한 가을 바람
오후부터 찬 바람이 불고 기온이 떨어져 쌀쌀하겠다.

구분	구분	기온
광주	구름점차어짐	13/21℃
목포	구름점차어짐	13/20℃
여수	구름점차어짐	16/22℃
완도	구름점차어짐	13/21℃
구례	구름점차어짐	11/22℃
해남	구름점차어짐	11/21℃
장흥	구름점차어짐	11/22℃
고흥	구름점차어짐	12/23℃
순천	구름점차어짐	13/22℃
영광	구름점차어짐	10/20℃
진도	구름점차어짐	12/21℃
전주	구름점차어짐	11/21℃
남원	구름 조금	9/21℃
옥산도	구름점차어짐	15/18℃

구분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0m
서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구분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서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0.5~1.5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0~2.0m

구분	일출	일몰
목포	06:06	11:20
여수	00:28	06:41

◇주간날씨

날짜	15(금)	16(토)	17(일)	18(월)	19(화)	20(수)
날씨						
최저/최고	10/19	8/20	10/21	10/23	10/22	11/20

2500만 고객에 위한 블록버스터 카드

Touch 1 카드 출시!

나라의 반을 움직일 카드, 고객이라면 이제 지갑 속에 하나SK카드 하나만

최대 혜택 50%할인 / 명화 연간 12회 무료 / 주유, 마트, 호텔 22만 할인 / 학원 마당 1만만 할인

“과음이 당뇨병 촉진”

과도한 음주가 당뇨병을 촉진시키는 세포내 원인 신호체계가 국내 연구팀에 의해 처음으로 규명됐다. 이는 성인의 혈당이 한번 올라가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원인이 음주 때문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적당량의 술이 만성질환 예방효과가 있다는 기존 보고들과는 상반되는 내용이다. 질병관리본부 생명과학센터 대사영양질환과 김원호 박사팀은 알코올 중독성 질환자의 30~40%가 당뇨병을 갖고 있다는 임상적 소견에 따라 동물실험을 통해 알코올이 췌장세포의 기능저하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행뉴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총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목포점 (061)262-9200

익산점 (063)851-2422

제발 멈추기만 해도 땡큐죠

빠지는 머리카락 개수에 신경 쓰이면 효과가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18세~65세 남성) 170명 대상 임상시험 결과, 모발 개수와 굵기가 증가되어 효과가 검증되었습니다

검증된 탈모증 치료제

마이녹실

■ 마이녹실 임상결과

참여자의 92.9%가 효과 확인

전국 14개 대학병원 및 종합병원 피부과에서 남성형 탈모증 환자 170명을 대상으로 마이녹실 5% 24주간 임상시험 결과, 158명 즉 92.9%가 호전되어 그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매우호전 5명(2.94%), 호전 47명(27.65%), 약간호전 106명(62.35%)

남성형 탈모증 환자에 대한 5% Minoxidil 용액의 공개 다기관 임상연구(제4상 임상시험, 대한모발학회 공동연구) - 대한 피부과학회지 2009년 3월호 발표

■ 임상연구 참여기관
가톨릭대학교 강남성모병원, 경북대학교병원, 경희대학교 동서신의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관동대학교 영지병원, 동아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분당 서울대학교병원, 연세대학교 원주외과대학 원주기독병원,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인하대학교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이상 가나다 순) 14개 대학병원 피부과 공동참여

바르는 탈모치료제

마이녹실

1일 2회 4개월 이상 꾸준히 바르십시오

제품문의 | 080-024-5525
02-2600-3884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최우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읽고, 의사처方的 상의하십시오.]